

# 대학병원 유치·인구 30만 회복...시민 자부심 살린다

## 여주시 민선 6기 비전 선포



### ■ 5대 핵심전략

- ① 시민참여 소통도시
- ② 지역경제 활력도시
- ③ 교육복지 으뜸도시
- ④ 문화관광 창조도시
- ⑤ 사람중심 행복도시

일자리 늘리고 사립명문고 육성  
박람회장 사후 활용 원도심 활기  
심포지엄서 발전방안 머리맞대  
해양관광도시 콘텐츠 개발키로

주철현 여주시장이 민선 6기의 핵심 테마로 시민참여와 일자리, 교육 및 복지, 문화관광, 사람중심을 선정했다.

주시장은 지난 8일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문예회관에서 여수 도시비전 선포식을 갖고 ▲시민참여 소통도시 ▲지역경제 활력도시 ▲교육복지 으뜸도시 ▲문화관광 창조도시 ▲사람중심 행복도시 등 5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51개 부서별 팀장급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며 현안사항과 개선 과제를 찾아냈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유치·인구 30만 회복 = 민선 6기 출범 이후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발족해 14차례



주철현 여주시장은 지난 8일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아 여수문예회관에서 도시비전 선포식을 갖고 5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에 걸쳐 26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주시장은 현재의 여수시의 문제점으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에 의해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으나 젊은층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불만족, 명문고 전무, 원도심 침체 장기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부재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행정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여수산단의 지원을 받아 사립 명문고를 세우고, 대학병원을 여수·순천·광양의 접경지인 울촌에 유치해 인구 30만명을 회복하고 시민 자부심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순천대가 의대를 유치하더라도 대학병원은 울촌이 적지라고 본다”며 “여수는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데다, 사고율도 가장 높은 곳으로서 울촌지역에 병원이 건립되면 순천과 광양 모두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시장은 특히 이날 “도시의 수준은 공무원의 수준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외 연수와 동아리 활동 등을 대폭 확대해 시 공무원의 역량을 지금 보다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참여와 소통은 여수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합의를 통해 도시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밝은 미래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해양관광도시 부합 SW구축해야 = 선포식에 이어 열린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신 지역주의와 여수발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이 교수는 여수발전을 위한 과제로 해양관광 도시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워터프런트의 활용, 소규모 단위 도시재생사업 전개, 광양만권 도시 간 연계협력 강화, 21세기형 새로운 ‘집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욱 여수 부시장은 ‘여수 도시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수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활력있는 시민주인 도시, 성장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매력있는 해양관광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허브 도시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각 주제별로 전문가와 여수시 담당국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은 “사람중심 행복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서는 30만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민선 6기 100일 동안 주시장은 시민참여의 소통시정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 시스템을 도입, 청렴 시정과 책임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을 구현했다고 자평했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민 위원회를 구성, 소통시정을 전개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플랜트 노사 4년 연속 무분규 달성과 우수기업을 유치해 147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도 있었다.

시민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여성인권 증진, 아동·청소년·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등 ‘주민 친화형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성용 이순신의 유적을 적극 활용한 관련 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메카 여수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의 최대 숙원인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지연으로 원도심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기존 현안들에 대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급한 해결 과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거문도·광도항 접안시설 정비 여수항만청, 섬 주민 편의·안전 위해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이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재 안전확보에 나섰다.

여수 항만청은 이달 말까지 낙도 보조항로(여수시 삼산면 광도) 접안시설과 거문도항 터미널 접안 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여수 항만청은 여수 삼산면 광도가 낙도 보조항로지만 그동안 여객선 접안시설이 부족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낙도 보조항로 지원사업이 완공돼 접안시설이 모두 들어서면 여객선은 물론 계류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성 등이 높아져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도 지난해 신축했지만 기존 오래된 여객선 접안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여수 항만청은 거문도 여객터미널 접안시설을 확충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운열 청장은 “40여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여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대보수 기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 여천NCC·대림산업



여수 국가산단내 여천NCC와 대림산업은 공동으로 지난 8일 여천NCC 3사업장 정기 대보수 기간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번 안전 캠페인은 여천NCC와 대림산업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물론 사고 예방을 통해 성공적인 대정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여천NCC와 대림산업 관계자 및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여수 지부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여천NCC 3공장 북문에서 안전 홍보피플을 어깨에 두르고 공장 출입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간식 등을 나누며 안전의식 확립과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여천NCC 관계자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철저한 교육과 캠페인 확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자만의 청정갯벌·낙조 연안생태 특화 관광지로

## 186억 투입 휴양마을·갯노을길 조성

여수 여자만(灣)이 연안생태 특화 관광지로 조성된다.

여수시는 민선 6기 4년 동안 총 186억원을 들여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과 갯노을길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가운데 내년도 국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여수반도 서쪽에 위치한 여자만의 아름다운 청정 갯벌과 낙조를 생태체험과 연계해 오는 2018년까지 새로운 관광코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소리면 복산리 일원에 ‘달천 갯길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정비’, ‘달천 선착장 복합관광시설’ 등을 만드는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1차로 추진한다.

이어 갯노을길 조성 사업을 통해 울촌면 상봉리~ 화양면 장수리까지 60km 구간에 탐방로와 하

이강코스를 개설·정비하고, 휴게시설과 전망데크·타워, 안내시설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 완공과 함께 오는 2020년 여수~고흥을 잇는 11개 연륙·연도교가 개통되면 꼬막 주산지인 보성·별곡~순천만 정원~고흥·팔영산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생태탐방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해양·습지·섬·어촌 등 생태 관광자원이 풍부한 여자만 일대를 전남 동부권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를 통해 세계 박람회장과 옹동도, 진남관 등 도심권과 거문도·백도 등 기존 관광코스와 함께 해양과 연안을 소재로 한 명품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반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해 ‘사계절 체류형 휴양레저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 세대 남향배치**    **총228세대 | 전용면적 57㎡**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 용봉동 도나우타운

- ✓ 입주 전 베이비루트 실시
-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평판시스템 설치
- ✓ 건축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 1층 필로티 구조
-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 인방 불박이장 설치
-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 ✓ 전세대 확장형
-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 홈 오토시스템

문의062  
**264-7789**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시관 2층

**10월17일 OPEN**    **오픈 김장훈팬사인회**